

‘이벤트 회사’ 아닌 본래 역할 재정립해야

민선 6기 광주시 문화행정 새 판을 짜라

③ 광주문화재단

사업 확대 급급·지역 예술인과 불협화음... 신뢰 잃어 대표이사·사무총장 ‘무늬만 공모’ 아닌 공정 채용을 ‘시 하청기관’ 대신 협력·존중 관계 인식 전환도 필요

지난 2011년 1월, 광주시는 시민들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 시킨다는 목적으로 광주문화재단을 출범시켰다. 문화도시 광주를 지향했던 만큼 시민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광주문화재단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컸다.

광주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지역문화계는 광주문화재단을 외면하고 있다. 재단설립의 본래 취지보다는 사업을 확대하려는 데 급급했고, 지역 예술인들과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지역문화계의 신뢰를 잃어갔다.

광주문화재단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재단 이사장인 광주시장이 바뀌고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과 실무 총괄하게 될 사무총장이 새롭게 교체될 예정이다. 새 판을 짤 수 있는 기회다.

광주문화재단이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장과 조타수를 뽑는 일이다. 재단은 지난해말 노성대 대표이사의 연임 포기 이후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은채 6·4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최근 사무총장마저 자리를 옮기면서 선원들 만으로 항해하는 꼴이 됐다.

어느 조직이든 위상과 역할에 맞는 책임자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문화재단 역시 대표이사과 사무총장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역점을 두고 스폰서십에 주력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

이다. 기금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광주문화재단은 현재 87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출범 당시 80억원에서 6억~7억원 늘었을 뿐이다. 전국 13개 시도 문화재단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액수다. 재단측은 운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작아보니 고유사업들의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대표이사의 기금 조성 역할이 중요시 되는 대목이다.

7월 1일 윤장현 광주시장의 민선 6기가 출범되면 곧바로 재단의 대표이사과 사무총장을 뽑는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해 진행된 사무총장 공모에만 23명이 지원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여왔고 여기에 대표이사까지 동시에 공모가 치러질 경우 치열한 자리싸움이 예상된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속에 무엇보다 ‘무늬만 공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공개채용의 맹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보다 앞서 심사위원 추천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실명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문화계에서는 광주문화재단의 역할부터 다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단은 설립 이후 ‘이벤트 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한 사업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창작가요제와 여성합창축제 등 일



광주문화재단이 대표이사과 사무총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문화계에서는 재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남구 구동에 위치한 광주문화재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부 사업을 시에 반납했다고 하지만 조직적 진단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윤 총 구성된 광주시의 문화재단 관련 TF팀이 조직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조직 개편도 단행해야 한다. TF팀은 재단의 업무가 너무 많아 본연의 기능인 정책 수립과 연구가 미흡하고 조직이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보조금 교부 사업 등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의 문화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문화재단을 하청기관이나 이벤트 회사로 보는 게 아닌, 문화관광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는 광주문화재단 1기 이사회 출신으로, 이사로 활동할 당시 광주시의 간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만큼 문화재단의 자율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청산도 아침’

40여년 茶 인생 녹아있다

황기록씨, 회고집 ‘초생울...’ 발간... 25일까지 전시회도

황기록(74)씨는 평생 차와 그림을 벗 삼아 지내왔다. ‘우리차 문화’ 보급에 앞장선 차인으로, 산하를 여행하며 화폭에 자연을 담백하게 담은 화가로 살아온 그가 차 인생을 기록한 회고집 발간과 함께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25일까지 은암미술관.

1984년 예술의 거리에 광주 최초의 녹차 전문차집을 열었던 그의 회고집 ‘초생(초생)을 따다가’에는 40여년의 차 인생이 녹아 있다.

책에는 각종 신문과 잡지 등에 연재한 차에 관한 에세이와 생각들이 정리돼 있다. 특히 우리차 애용, 검소한 차생활, 차와 건강, 차음식, 떡차와 황차 제다법, 광주지역 차문화 발전과정, 차의 일상화 등과 함께 차로 인해 만난 인연의 소중한 감동한 글들이 실려 있다.

황씨는 1991년부터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로 12년간 활동하다 지난 2005년 차로 인연을 맺은 독지가의 후원으로 북구 신안동에 차문화자료관 ‘명우당(茗友堂)’을 개관, 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우당에는 그동안 그가 모은 차관련 서적 1000여권 등 다양한 자료가 소장돼

있다.

황씨는 홍익대 서양학과에 입학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실내 디자인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전업작가의 길을 걸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영이나 제주, 변산 등지의 해변 모습과 즐겨 찾는 백양사 입구의 고즈넉한 모습 등 그림마다 작가의 해안과 삶의 방식이 그림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의 작품은 마치 수필을 쓴듯 자유로운 붓질로 수채화의 맛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꾸밈없이 살아가는 작가 특유의 해안과 삶의 방식이 그림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전시 개막에 앞서 만난 그는 “차를 조금 알면 금세 중국 차의 노예가 돼 중국 차가 최고인 줄 알고, 즐기기도 모르게 급급해한다”며 “우리 차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없는 현 세대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희덕 시인과 ‘유대인 학살’ 논하다

광주시네마테크, 26일 ‘밤과 안개’·‘쇼아’ 상영

‘나희덕 시인과 함께 영화 보기.’ 지역 문화 인사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한 편의 영화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광주시

네마테크와 함께 하는 영화 읽기’ 6월 행사 열린다.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시인 나희덕(조선대 문

예창작학과 교수·사진)을 초청했다. 나 시인이 추천한 작품은 유대인 학살 관련 다큐멘터리다. 상영작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룬 알렉 레네 감독의 ‘밤과 안개’(1955), 나치 대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쇼아’(1985) 두편이다. 원작이 556분에 달하는 ‘쇼아’는 1시간 축약본으로 상영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225-8850. /김미은기자 mekim@

순백으로 빛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광주시립미술관 방병선 교수 초청 강좌... 25일 상록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 ‘2014 상록인문학강좌’ 세 번째 강사로 미술사학자 방병선(사진)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초대했다.

25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강연에서 방 교수는 ‘순백으로 빛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를 주제로 강연한다.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백자의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강좌다. 방 교수는 우리나라 백자의 아름다움과 미술



사적 의미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방 교수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중국도자사연구’,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등이 있다. 문의 062-613-715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력 유재관

급히 찾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실분들
출출이 대기중이네요

지역이,금액이,종류가
맞지않아서요

부동산이라면
[무엇이든][지역 상관없이][금액상관없이]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다임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뉴스 재테크 방식,건강정보
전국 세 번째이상 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급매물도있어요

- 1)금남로 오피스텔 39㎡ 6세대 명처리
- 2)롯데역 원룸빌딩 50%급처분
- 3)대형 콜라텍 거저드립니다
- 4)화순 담양 전담,임야 싼매물 많아요
- 5)대로코너 대단지임구 싼매도있어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수익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수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